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현숙¹ · 배성우² · 김이영³

¹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³대구재활센터 시설장

The Effects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on the Levels of Self-Efficacy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Park, Hyun Sook¹ · Bae, Sung-Woo² · Kim, Yi Young³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³Director, Daegu Psychiatric Rehabilitation Center,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provided by a psychosocial rehabilitation center on the levels of self-efficacy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We followed the study subjects for 2 yr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ir levels of self-efficacy. **Methods:** There were 18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y received all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available at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center for 2 yr. In the comparison group, there were 17 participants who voluntarily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were effective in increasing the levels of the self-efficacy total score and specific self-efficacy score. **Conclusion:** The overall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provided by a psychosocial rehabilitation center had a positive impact on increasing the levels of self-efficacy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Key words: Mentally disabled persons, Rehabilitation, Self efficac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난 뒤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설립된 16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병원에서 퇴원한 정신장애인을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왔으며 그 효과도 꾸준히 검증되어 왔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가장 보편적이며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방법으로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요소인 단일 프로그램을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하고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예를 들면 약물·증상관리교육(Kim, 2005), 스트레스관리 교육(Bae & Lee, 2005), 사회기술훈련(Lee, 2005; Park, 1999), 일상생활훈련(Choi, 2001), 직업재활 훈련(Kim, 2005), 재기교육프로그램(Kim, Park, & Park, 2006), 자기주장훈련(Han, Im, Yang, Chung, & Suh, 2005) 등 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또는 연구자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정신장애인에게 적용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정신장애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일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은 매우 가치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되

주요어 : 정신장애인, 재활, 자기효능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Hyun Sook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eo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7 Fax: 82-53-621-4106 E-mail: parkhs@cu.ac.kr

투고일 : 2008년 6월 24일 심사회의일 : 2008년 6월 25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0월 6일

어아 할 연구 분야이다(Bae & Kim, 2005). 그러나 개별프로그램들의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해서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개별 프로그램 간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재활서비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단기간의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Robinson, Woerner, & Schooler, 2000). 즉 정신장애인의 재활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는 두 번째 방법은 직업재활, 환자교육, 사회기술훈련,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들로 구성된 포괄적인 지역사회 정신보건 프로그램을 하나의 중재로 간주하여 이들 프로그램의 포괄적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Bae, 2001; Brekke, Ansel, Long, Slade, & Weinstein, 1999). 지금까지 국내외의 여러 연구에서도 재활서비스의 효과가 검증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증상, 재발률, 입원횟수, 입원일수 및 직접치료경비(Kim, 2004; Kim et al., 1997), 일상활동수준과 대인관계변화(Clarkin, Carpenter, Hull, Wilner, & Glick, 1998; Kim, 2004), 삶의 질(Bae & Kim, 2005; Bracke, 2001; Kim, 200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포괄적 정신재활서비스의 효과 검증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신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은 욕구가 다양하고, 기관의 사명 등의 차이에 의해 서비스 효과를 측정하는 과제가 매우 복잡하며(Durbin, Perndergast, Dewa, Rush, & Cooke, 2003),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치가 다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Bracke, 2001). 최근 연구자들은 임상적 변화(증상, 재발률, 재입원을 등)와 기능적 변화(직업, 대인관계, 가족관계, 독립생활 등)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주관적 경험의 변화(삶의 질,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도 측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Brekke & Long, 2000; Yildiz, Veznedaroglu, Eryavux, & Kaya-han, 200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향상의 중요성 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서 주어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자원이나

동기 혹은 다양한 행동과정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신념을 말한다(Bandura & Wood, 1989).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낮은 자신감으로 인해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병으로부터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인간 행동 변화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서 자기효능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념으로 건강증진행위에 있어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보았다(Bandura & Wood, 1989). 최근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정신장애인의 재활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모델 설정 연구들(Kang, 2007; Rho, 2000)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Kang, 2007; Rho, 2000)와 삶의 질(Rho et al., 2001)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정신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정신재활서비스의 효과 검증 논문을 메타분석 한 결과(Seo, 2002)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기간에서는 1-9주가 53편(51.5%)으로 가장 많았고, 10-20주는 32편(31.1%), 20주 이상은 18편(17.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신재활프로그램의 약 84%는 연구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걸친 변화만을 검증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중재의 효과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일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재를 중단하게 되면 효과가 유지되기보다는 현저하게 하락곡선을 그리게 된다고 하였다(Scott & Dixon, 1995). 따라서 정신재활서비스의 재활성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효과 검증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며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구체적인 효능감(질병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다양한 음식섭취 등)과 일반적 효능감(계획 설정 및 목표 설정,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신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받은 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받은 집단은 비교집단보다 구체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받은 집단은 비교집단보다 일반적 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1) 정신사회재활서비스

정신사회재활이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능과 증상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련의 방법과 기법들을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Park et al., 2008). 본 연구에서의 정신사회재활서비스란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등록한 후, 시설 이용 시에 제공한 정신재활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 직업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자치활동프로그램, 특별활동프로그램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서 주어진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자원이나 동기 혹은 다양한 행동과정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신념을 말한다(Bandura & Wood, 1989).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다양한 음식섭취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효능감과 사회적 상황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능력, 계획 설정 및 목표 성취에 대한 자신감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 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ho (2000)가 개발한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5. 연구의 이론적 기틀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의 임상적 변화(증상, 재발률, 재입원을 등)와 기능적 변화(직업, 대인관계, 가족관계, 독립생활 등)에 대한 측정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주관적 경험의 변화(삶의 질,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를 측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Brekke & Long, 2000; Yildiz et al., 2004). 이와 같은 다양한 변인

들 중 최근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행위의 습득, 습관적 행위의 중단, 중단한 행위의 재개 등에 영향을 주며, 성공 기대감을 통해 대처능력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재활성 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모델 설정 연구들(Kang, 2007; Rho, 2000; Rho et al., 2001)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유사 실험설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시기(사전검사, 1년 후 검사, 2년 후 검사)와 집단(실험집단, 비교집단)이며, 집단은 집단 간 변인이고, 시기는 집단 내 변인이며, 종속변인은 자기효능감이었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편의 추출에 의해 일 지역에 소재한 일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정신장애인 중 언어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분열병 30명, 조울증 5명이었으며, 남자가 28명, 여자가 7명이었다.

초기 연구 대상자는 Cohen (1988)의 공식에 따라 $\alpha=.05$, power $(1-\beta)=.80$ 을 기준으로 실험집단 25명, 비교집단 23명으로 총 48명을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군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집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가정방문을 희망하는 군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는 2년 동안 실험집단의 경우 입원을 하거나 혹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 7명을 제외하고 최종 18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으며, 비교집단의 경우 연구기간동안 입원을 한 경우와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거나, 또한 본인의 의사에 의해 연구를 거부한 6명을 제외하고 최종 17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 도구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정신분열병 환자의 구체적 자기효능감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Rho (2000)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0점에서 최고 100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전체 효능감이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구체적 효능감은 .90이었으며, 일반적 효능감은 .95이었다.

2) 정신사회재활서비스

본 연구가 실시된 사회복지시설은 교육 훈련 중심의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전문가 8명이 근무하고 있는 75명 정원의 시설이었다. 이곳은 정신보건전문요원 6명(정신보건임상심리사 5명, 정신보건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기타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대부분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 외 사회적응훈련의 경우는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연구가 실시되는 동안 시설에서 제공된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설에서 대상자에게 2년간 제공한 프로그램은 정신재활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직업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프로그램, 자치활동프로그램,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신재활프로그램은 정신장애인의 병과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약물, 증상관리교육, 대인관계훈련,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 1회, 60분 정도 실시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은 정신장애에 대한 정보와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대개 주 1회, 60분 정도 실시되었다. 사회현장훈련은 시설 밖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으로 관공서 방문, 주말활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주 1회, 120분 정도 실시되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취업을 하고 있는 회원을 주 1회 방문하여 상담하는 취업장 방문과 직업에 대한 동기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주 1회, 60분정도 실시되었다. 가족지원프로그램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족상담이 월 1회, 120분 정도 실시되었다. 자치활동 프로그램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치회의로 주 1회 정도 실시되었고 취업자 모임은 월 1회 정도 실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특별활동프로그램은 편견 없애기 홍보 및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을 의미하며 연 1회 실시되었다.

4.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2004년 3월부터 2008년 2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두 집단 모두 시설에 신규로 등록된 후, 개별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정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에서 진행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1년 후와 2년 후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비교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주 1회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1시간 정도 제공하였으며, 1년 후와 2년 후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평가를 실시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 Overview of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Classification	Programs	Frequency
Rehabilitation	Basic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medication, symptom manag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management, cognitive rehabilitation, self-confidence training, and perspective-oriented social skills training	1 hr/once every week
Education	Art, paper folding, individual counseling, group counseling, and recreational therapy	1 hr/once every week
Field training	Government office visits, work-study programs, outdoor activities, picnic party, shopping training, weekends activities, and sports activities (walk, stretching, football, athletic meeting, and bowling)	2 hr/once every week
Vocational rehabilitation	Workshop visits and job training	1 hr/once every week
Family assistance	Family counseling	2 hr/once every month
Self-government program	Self-government meeting and employees meeting	1 hr/once every week
Special activity	Campaign for the elimination of prejudice toward the mentally ill, disabled persons day event, and year-end party	All day/once every year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은 분류형 자료의 경우는 χ^2 와 Fisher's exact test로, 연속형 자료의 경우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Repeated measures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증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실험군과 비교군의 동질성 검증은 Table 2와 같이 성별, 나이, 학력, 유병 기간 및 진단명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자기효능감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실험군과 비교군의 동질성 검증은 Table 3과 같이 자기효능감 전체점수, 구체적 효능감 및 일반적 효능감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35)

Variables	Category	Experimental group (n=18)	Control group (n=17)	χ^2 or Fisher's exact test	p
		n	n		
Gender	Male	15	13	0.257	.691
	Female	3	4		
Age (yr)	Below 39	12	7	2.289	.181
	40-49	6	10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10	8	0.253	.740
	Above college	8	9		
Duration of illness (yr)	Below 15	9	9	0.030	.999
	Above 16	9	8		
Diagnosis	Schizophrenia	16	14	0.305	.658
	Bipolar disorder	2	3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Self-Efficacy (N=35)

Variables	Experimental group (n=18)	Control group (n=17)	t	p
	M (SD)	M (SD)		
Total self-efficacy	127.27 (39.36)	128.82 (35.26)	-0.122	.904
Specific self-efficacy	63.88 (16.97)	63.29 (16.92)	0.104	.918
General self-efficacy	63.38 (24.54)	65.52 (20.73)	-0.278	.783

2. 자기효능감의 총점의 변화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검사, 1년 후 검사 및 2년 후 검사를 이용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전검사, 1년 후 검사 및 2년 후 검사의 차이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1.03, p=.317), 검사시점 간(F=0.69, p=.502)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검사시점의 상호작용효과(F=4.25, p=.01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검사시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62, p<.05). 즉, 실험집단에서 1년 후 검사와 2년 후 검사 점수는 사전검사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비해, 비교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3. 구체적 효능감의 변화

구체적 효능감에 대한 사전검사, 1년 후 검사, 2년 후 검사를 이용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사전검사, 1년 후 검사 및 2년 후 검사의 차이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2.44, p=.128), 검사시점 간(F=1.60, p=.210)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검사시점의 상호작용효과(F=6.26, p=.003)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4. Analysis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Treatment (N=35)

Time	Experimental group (n=18)	Control group (n=17)	Source	F	p
	M (SD)	M (SD)			
Baseline test	127.27 (39.36)	128.82 (35.26)	Group	1.03	.317
1-yr test	140.33 (35.03)	118.94 (37.17)	Time	0.69	.502
2-yr test	141.11 (39.67)	124.58 (41.30)	G * T	4.25	.018

Table 5. Analysis of Specific Self-Efficacy according to Treatment (N=35)

Time	Experimental group (n=18)	Control group (n=17)	Source	F	p
	M (SD)	M (SD)			
Baseline test	63.88 (16.97)	63.29 (16.29)	Group	2.44	.128
1-yr test	73.22 (13.76)	58.00 (16.84)	Time	1.60	.210
2-yr test	72.16 (19.29)	62.47 (21.06)	G * T	6.26	.003

Table 6. Analysis of General Self-Efficacy according to Treatment (N=35)

Time	Experimental group (n=18)	Control group (n=17)	Source	F	p
	M (SD)	M (SD)			
Baseline test	63.38 (24.54)	65.42 (20.73)	Group	0.27	.605
1-yr test	67.11 (23.14)	60.94 (21.89)	Time	0.17	.848
2-yr test	68.94 (22.30)	62.11 (21.98)	G *T	1.72	.186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순 주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검사시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17, p<.01). 즉, 실험집단에서 1년 후 검사와 2년 후 검사 점수는 사전검사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비해, 비교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4. 일반적 효능감의 변화

일반적 효능감에 대한 사전검사, 1년 후 검사, 2년 후 검사를 이용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사전검사, 1년 후 검사 및 2년 후 검사의 차이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주 효과(F=0.27, p=.605), 검사시기 간(F=0.17, p=.848), 집단×검사시기의 상호작용효과(F=1.72, p=.186)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간 제공한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의 전체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한 정신재활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의 전체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Eklund, Hansson, & Bejerholm, 2001; Kang, 2007; Rho, 200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구체적 효능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적 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효율적인 스

트레스 관리, 다양한 음식섭취와 유해한 기호품의 절제에 대한 효능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능력, 계획 설정 및 목표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일반적 효능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한 동기향상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의 구체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Kang, 2007)와 일치하지만 일반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ang, 2007)와는 불일치하는 결과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를 실시한 시설에서 제공한 프로그램 중 스트레스관리, 재기프로그램, 일상생활기술 프로그램이 Kang (2007)의 동기향상프로그램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문제 해결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은 누락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았을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구체적 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 총점과 구체적 효능감 영역의 분석에서, 비교집단의 자기효능감은 대체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점수와 구체적 효능감의 경우 1년 뒤의 측정에서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여 중재의 효과가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일정하게 상승한다는 선행연구(Scott & Dixon, 1995)를 지지하였다. 그 후 2년 평가에서는 꾸준히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1년 후 평가보다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비교집단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1년 후 평가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아졌고 2년 후 평가에서 다시 상승하여 사전검사와 비슷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결과는 지역사회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만성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제반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만성정신장애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이 2년에 걸쳐 제공된 장기적인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만성정신장애인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력(long-term positive effect)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

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 1년 미만의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본 연구는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가 적어도 2년 이상 유지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장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한 참여자를 실험집단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참여자를 비교집단에 배치한 유사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무선택당을 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가방문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한 형태이므로 엄격한 통제집단을 두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정교한 설계를 통해 정신사회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종사자들의 임상적 소견과 정신장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연구 설계를 통해 효과의 차이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정신사회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Eklund et al., 2001; Kang, 2007; Rho, 2000)에서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과 대처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정신장애인의 삶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지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의 증진이 구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임상적 변화(증상, 재발률, 재입원율 등), 기능적 변화(직업, 대인관계, 가족관계, 독립생활 등), 주관적 경험의 변화(삶의 질,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동시에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 론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였으며, 실험

집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18명, 비교집단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 1회 재가방문서비스를 받은 정신장애인 17명이었다. 두 집단 모두 시설에 신규로 등록한 후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년 후와 2년 후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연구 설계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 사후 실험설계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면서 정신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은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 총점과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인 구체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자기효능감 하위영역인 일반적 효능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효능감(구체적인 운동,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 다양한 음식섭취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적 효능감(사회적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계획 설정 및 목표 성취에 대한 자신감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 Bae, H. S., & Lee, E. J. (2005). The efficacy of stress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for the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Korea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8, 129-148.
- Bae, S. W. (2001). *Ethnicity and treatment outcomes from community-based psychosocial rehabilitation interventions: A longitudinal and multi-dimensional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USA.
- Bae, S. W., & Kim, Y. Y. (2005). Longitudinal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provided by a psychosocial rehabilitation center on the quality of life outcomes for the mentally ill.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0, 69-94.
- Bandura, A., & Wood, R. (1989). Effect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on self-regulation of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805-814.
- Bracke, P. (2001). Measuring the subjective well-being of people in a psychosocial rehabilitation center and a residential psychiatric setting: The outline of the study and the measurement properties of a multidimensional indicator of well-being.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4, 222-236.
- Brekke, J. S., Ansel, M., Long, J., Slade, E., & Weinstein, M. (1999). Intensity and continuity of services and functional outcomes in the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schizophrenia. *Psychiatric Ser-*

- vices, 50, 248-256.
- Brekke, J. S., & Long, J. (2000). Community-based psychosocial rehabilitation and prospective change in functional, clinical, and subjective experience variables in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26, 667-680.
- Choi, B. S. (2001). *The effect of after care program for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ttending outpatients depar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Clarkin, J. F., Carpenter, D., Hull, J., Wilner, P., & Glick, I. (1998). Effects of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for married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and their spouses. *Psychiatric Services*, 49, 531-533.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Durbin, J., Perndergast, P., Dewa, C. S., Rush, B., & Cooke, R. G. (2003). Mental health program monitoring: Towards simplifying a complex task.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6, 249-261.
- Eklund, M., Hansson, L., & Bejerholm, U. (2001). Relationships between satisfaction with occupational factors and health related variables in schizophrenia outpatien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6, 79-89.
- Han, K. S., Im, H. S., Yang, B. K., Chung, H. K., & Suh, Y. J. (2005).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interpersonal relations, social behavior, and psychiatric symptoms in patients with a mental disord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896-903.
- Kang, D. G. (2007). *Analysis of motivation for change of the person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nd effectiveness of motivation improvement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ang, S. K. (2007). Perception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treatment environment and coping behavior: The role of self-efficacy.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27, 152-175.
- Kim, C. K., Kwang, D. H., Cho, J. S., Shim, K. S., Ha, J. S., Byun, W. T., et al. (1997). Effect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for schizophrenia at the community welfare center. *Mental Health Services*, 2, 53-67.
- Kim, H. J. (2005). Effects of prevocational education program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the person with psychiatric disability. *Korea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8, 151-168.
- Kim, Y. Y. (2004). The psychiatric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heir impact on rehabilitation outcomes: Six month follow up. *Korea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6, 5-26.
- Kim, Y. Y. (2005). The efficacy of basis education (medication management, symptom management, stress management, conversation skill training, daily living skill training) for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Korea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8, 91-107.
- Kim, Y. Y., Park, H. S., & Park, K. M. (2006). The effects of a recovery education program on rehabilitation motivation, symptoms, and function for schizophren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 542-550.
- Lee, K. S. (2005). Effect of health-oriented social skills training on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in schizophrenics. *Korea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8, 109-128.
- Park, H. S., Kim, T. K., Kim, H. M., Son, K. H., Lee, H. K., Jeon, S. S., et al. (2008).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Contemporary practice*. Seoul: Hyunmoon Co.
- Park, S. G. (1999). *Effect of perspective-oriented social skills training on improvement of social skills in schizophren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Rho, E. S. (200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quality of life model of schizophrenic pati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Rho, E. S., Kwon, H. J., & Ryu, E. J. (2001). A study on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in schizophren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912-920.
- Robinson, D., Woerner, M., & Schooler, N. (2000). Intervention research in psychosis: Issues related to clinical assessment. *Schizophrenia Bulletin*, 26, 551-556.
- Scott, J. E., & Dixon, L. B. (1995).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schizophrenia. *Schizophrenia Bulletin*, 21, 621-630.
- Seo, Y. M. (2002). *Meta-analysis of psychosocial rehabilitation programs about schizophrenia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 Yildiz, M., Veznedaroglu, B., Eryavux, A., & Kayahan, B. (2004). Psychosocial skills training on social functioning and quality of life in the treatment of schizophrenia: A controlled study in Turke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ic in Clinical Practice*, 8, 219-225.